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지역 혁신협의회 토론회 날입니다. 부산발전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

발전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놓고 정치적으로 논쟁도 많고 더러 시끌시끌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런 일들은 다 흘러가버리는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그 시대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 몇 가지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로서는 첫 번째 대답하고 싶은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함께 더불어서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발전 속도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를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발전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에 서있는 일부 대기업들, 그

리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노동자로 얘기하더라도 일류 대기업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8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6명, 2002년 통계로는 37명, 2003년 통계로는 조금 줄어서 35명 정도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세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제일 먼저 줄어듭니다. '수입이 10% 줄었다'가 아니라 아예 수입이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일본만 해도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자영업인데, 우리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중에 또 어찌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입니다. 수도권은 지금 너무 사람이 몰리고 너무 비대하고 비좁아져서 큰 문제입니다. 공기(空氣)가 공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도권에 아이를 키우면 전부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 가서 며칠 있다가 오면 나아버리고 이렇게 할 만큼 공기가 나쁩니다. 교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비용이 연간 12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이 전국의 주택가격을 이끌고 가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서울 그 자체로서는 주택을 더 지어줄래야 땅이 없어서 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은 매년 10만호 하려고 하는데, 땅을 구하지 못해서 서울 변두리 겨우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임대주택은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서도, 수도권으로서도 이대로 가서는 더 이상 사람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지방이 발전해야 됩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돼야 만이 전체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전략을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권력에 줄을 대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모든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 줄을 댈 수 있어야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서울로 다갔습니다. 은행 돈을 빌리느냐 못 빌리느냐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이었으니까 서울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정보와 시장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힘으로 기업을 지방으로 보낼래야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과거처럼 권력으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없고 은행 돈으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기업이 성공하자면 높은 기술, 높은 인재,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정보, 그리고 넓고 다양한 시장, 세계시장의 접근성 이런 것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전략을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잘 결합시켜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의 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 나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집적지가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의 여러 지방은 규모가 작아도 소위 혁신클러스터, 혁신전략을 통해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지식과 정보를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내고 지역사회가 서로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전형적인 것이 물론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지만 그밖에도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사는 길도 혁신이고 중앙이 사는 길도, 아니 전국이 사는 길도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도 과학기술혁신, 인재육성 그것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도 혁신과 인재 그것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산·학·연 협력관계를 비롯해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또 지역혁신체계,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함께 권고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과학기술혁신, 시장개혁, 사회개혁 이런 것도 크게 발전전략이지만 크게 보아서 균형과 혁신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체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지방에 내려오면 돈을 얼마 가져와서 어떤 사업을 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내고 항만을 만들고 철도를 놓고 다리를 놓고 이런 일이라면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그것만으로는 그 도시가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찾고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개별적인 사업의 선물보다는 지역의 혁신전략을 어떻

게 세워서 어떻게 성공시켜 갈 것이냐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여기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체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정부도 함께 논의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길잡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해야 하는데 저도 와있고 중앙부처 장관들이 와 있으니까 토론의 방향이 자꾸 중앙정부가 해야 될 노릇에 대해서 이런저런 화제가 모아지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앙정부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의 토론인데, 자꾸 주제가 중앙정부와 대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의 자율적 토론하고 좀 벗어나지 않느냐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한 토론으로 생각하고 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또 중앙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좋은 결론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남습니다. 반드시 효율적인 사업에만 돈을 쓴다면 모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후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중에 한 10% 정도는 무조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잘라냅니다, 대신 그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 10%를 더 찾아냅니다, 이런 것이 예산운용에 관한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반드시 성공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렇게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역의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동남권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이것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우수한 사업을 만들어 내고 어떤 지역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산, 그리고 통합적으로 동남권 - 저는 부산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좀 답답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시라 할지라도 동남권 전체를 내다봐서 동남권이 볼 수 있습니다 - 예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래도 사업 환경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 동남권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적어도 산업적 측면에서 동남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동남권, 부산이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국가 발전에 큰 기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제 재임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돕겠습니다. 부산, 경남 이곳은 결국 제가 공직을 떠나면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 곳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